

언제나 그 자리 잠녀들과 호흡한 섬 '사수도'

추자도 추가답사 2

등록 : 2010년 11월 02일 (화) 18:42:09
최종수정 : 2010년 11월 02일 (화) 18:42:09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 최북단 추자도 부속 무인도...완도군과 '소유권 분쟁'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결

바다 의존도 높은 추자 잠녀들에게 큰 존재감, 지금도 해남 등 4명이 '섬지킴이'역할 수행



'사수도 표석' 중에서(예초리사무소 앞 소재)

하추자에서 동쪽 36km 거리에 있는 넓이 138,701㎡의 무인도이다.

이 섬을 전라남도에서는 잊을만하면 완도군 소안면 소속 잠수도(障水島)라고 영유권을 주장하여 왔다.

1919년 세부(細部)측량시 예초리 산121번지호 확정(劃定)되고 예초리 사람 김유홍(金裕洪) 명의로 등기, 또 1930년 일본인 다나카(田中斗)가 어장 확보차 매입 등기되고, 조국광복이 되자 국유지가 되었다.

1961년 추자교 교장 박철규(朴哲奎)와 학부모회장 박병술(朴炳술)은 흑송 1천본을 심었고, 1962년 다시 1천본을 심어 지상권을 선점, 황금어장의 수입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 1967년 제주세무서로부터 73,500원으로 매입 등기된 바 있다.

또 1993년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재산으로 이전하려 한 바 있었다.

선각자 박교장은 1993년에 타계하고 1994년 3월 추자도민들은 '박철규선생 송덕비'를 학교 교정에 세워 그를 기렸다.

“그 섬은 한번도 우리 것이 아닌 적이 없었다”

지난 2005년부터 전남 완도군과 관할권 다툼을 벌여오던 ‘사수도’에 대한 추자도 잠녀의 말은 너무도 분명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진 기자의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를 정도였다.

예전에는 월새없이 섬을 오르내리며, 지금도 혹시 모를 낚시꾼들에 의한 훼손에 바다 건너 쓰레기의 습격(?)들에서 섬을 지키는 것은 그녀들이다. 아니 이제는 그녀들 속에 ‘그’도 있다.

추자도를 떠나고도 바다를 찾아 섬을 찾는 묘한 회귀 본능은 사수도라고 예외는 아니다.

사수도 이야기

누구나 사수도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다. 제주의 최북단 섬 추자도의 42개 부속섬 중 하나인 사수도는 지난 2005년 관할권 분쟁으로 뜻밖의 주목을 받았다.

내용을 접하고 어리둥절한 추자도 주민들과 달리 본 섬 사람들의 반응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사실 그 이전부터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9년 제작된 「추자도」 지에서도 ‘사수도 소유권 싸움’이라 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옛 북제주군 토지대장에 사수도는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임야 6만9232㎡’로 기재돼 있다. 1919년 일재에 의해 정밀 측량을 거쳐 추자군도에 부속됐고 해방 후에는 중앙정부에 귀속됐다가 1972년 추자교육성회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완도군은 1979년 내무부의 도서등록지침에 따라 이 땅을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 임야 21만 4328㎡’인 장수도로 신규 등록해 버렸다.

한 쪽은 만조 때 수면 위로 올라온 실측자료를 근거로, 한 쪽은 항공촬영에 의한 면적 계산을 기초로 하면서 사실상 같은 섬이지만 다른 섬인 것처럼 존재했다.

그랬던 사수도가 소유권 분쟁에 휩쓸린 것은 사수도 인근 해역이 삼치·방어·참조기·돌돔 등 어장이 풍부하고, 잠녀들의 전복·소라 채취량이 상당한 등 황금어장으로 부상하면서부터.

전남 완도군과의 팽팽했던 소유권 싸움은 지난 2008년 12월 26일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당시 도기를 게양하는 등 ‘반짝’했던 관심은 지금은 다시 시들한 상태다. 섬을 찾는 사람들은 생태 변화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이나 대학, 다큐멘터리 제작자, 낚시객들이 전부다.

섬 잠녀가 ‘섬’에 간 이유

한 때 12명 넘게 들어가 작업을 했던 사수도에는 이제 해남 최성열씨(45)를 포함해 4명이 작업을 한다.

“언제 섬에 들어가는지는 비밀”이라며 쉽게 입을 떼지 않는 박금실 잠녀(56)가 최근 작업을 진두 지휘한다.

섬의 여자아이들이 그랬듯이 철이 들면서 누가 시키지도,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물질을 했다.

“아야 바닷에 가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하던 일을 두고 물에 든 적도 허다했다. ‘왜 섬에 가냐’는 말에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 돌아온다.

박씨는 “본도(추자도)에서만 물질을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며 “물건보다는 생계를 위해 섬(사수도)에 갔다”고 말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5일을 채우기도 힘들지만 지금도 한달 12일정도 사수도에 간다.

박씨는 “본도 바다도 물살이 세지만 섬은 더하다”며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물건 썩는 날도 있고 못 썩는 날도 있지만(물건을 많이 잡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빈손으로 가게는 안한다”고 섬의 의미를 설명했다.

상군 소리를 듣는 박씨지만 사수도에서의 작업은 특히나 조심스럽다.

박씨가 처음 사수도에 간 것은 12살 무렵. 먼저 작업을 갔던 작은 어머니에게 ‘양식’을 가져다 줄 때 처음 섬에 발을 디었다.

박씨는 “그때는 배에서 내리고 나면 돌아가지 못할까 잔뜩 겁을 먹었었다”며 “지금은 그 곳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덕녀 할머니’가 보살피는 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수도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잠녀들의 작업이 없을 때 몰래 섬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입을 떼지 않았던 박씨였지만 한번 터진 바다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금이야 ‘사수도 지킴이 집’란 명패를 단 공간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흙바닥이 전부였다.

가마니로 찬 기운을 가리고, 천막에 의지해 바람을 피했다. 견디다 못해 배로 실고 갈 수 있는 것들로 간신히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가건물을 지은 것만 6~7차례나 된다.

박씨는 “흙바닥에서 자다가 겨우 몸 누울 곳이 생겼나 했더니 군인들이 갑자기 곡괭이며 삽을 들고 와 부숴 버린 게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더니 군 헬기에서 정찰하다 어제 못 봤던 것이 생겼다나 뭐라나…”

그렇게 미워했던 군인들이 결국은 ‘사수도 지킴이 집’을 정식으로 지어줬으니 세월 참 무상한 일이다.

박씨는 또 “사수도는 명산(名山)이라기보다 덕산(德山)”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섬 사람이 사수도에 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 첫번 째 이유다. 또 하나 이유는 사수도를 지키는 ‘덕녀(德女)’ 할머니다.

박씨는 “언제 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사수도는 덕녀 할머니가 보호하고 있다고 들었고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물건을 잘 해도 섬에서는 ‘덕봤다’는 말은 안 하고 ‘은혜를 입었다’거나 다른 말을 쓴다”고 했다.

심지어 ‘덕’자가 들어간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박씨의 이야기에 풍선 때부터 사수도로 잠녀들을 실어날랐다는 원용순 선장(78)이 기억을 보탠다. 어 느샌가 시간을 거슬러 사수도에 가 닿는다.